

# 복수의 업체 관심...입지·사업자 11월까지 결정

## 광주 첫 대기업 시내 면세점 개설 절차 어떻게 되나

광주 첫 면세점 입지와 사업자는 이르면 11월까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. 광주에 면세점 특화가 처음으로 생겨났다. 신세계가 수년 전 특급호텔과 연계한 면세점 운영에 의욕을 보였다. 점에 의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 특히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(면세점) 신청 공고가 15일 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반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.

◇어떤 절차 거치며, 어떤 업체들 관심 보일까=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시내 면세점 선정은 관세청 주관하에 이뤄진다. 기재부로부터 면세점 신규 허용과 관련된 심의결과를 넘겨받은 관세청은 이날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. 특허장소(면세점 입지)는 광주시내로 한정했고 일 반경쟁을 통해 면세점 업체 1곳을 선정한다. 특허기간은 5년이고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광주세관에 접수하면 된다. 운영인 자격요건과 매장 및 보관창고 규모 등의 시설 요건도 공지됐다. 신청 기업에 대한 특허심사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가 11월 선정, 발표된다. 이 과정에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선정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

관세청 특허신청 모집 공고 11월 11~14일 신청 접수 전국에 시내면세점 26개 출국 내외국인만 이용 가능 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. 광주시는 구체적인 업체를 거명하지는 않지만, 복수의 업체가 광주시내 면세점 사업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신세계가 수년 전 광주 신세계백화점이 소재한 광천동에 면세점과 특급호텔 신설 추진에 의욕을 보인 사례가 있는데,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사업성이 개선됐다는 판단에서다. 광주시에 따르면 무안공항 이용객은 2017년 15만6949명에서 2018년 32만6522명으로 108% 늘었다. 외국인 관광객 광주 방문시 주요 활동 1위에 '쇼핑'이 꼽힌 점(2017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)도 고려됐다. 광주시 관계자는 "2017년 조사에서 관광객들은 주요 활동으로 '쇼핑'(74.3%), 2위 '여가/휴가'(52.7%), 3위 '교육'(47.7% 이상 복수응답)으로 답할 정도로 관광객 관심이 컸다"며 면세점 업

체 유치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. <시내면세점 현황, 규모는>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(보세 판매장) 종류에는 외교관 면세점, 출국장 면세점, 시내 면세점, 귀금속류 면세점이 있다. 시내 면세점은 시내에서 출국인에게 외국 물품을 판매하고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면세점이다. 공항 외 지역에 설치된 곳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국인(내외국인)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.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,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. 출국 내국인의 경우 구매한도액 제도가 있는데, 금액은 미화 3000달러까지다. 광주시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 규모는 면세점 관련 고시에 따라 판매장은 331㎡, 창고는 66㎡ 이상이여야 하며, 면적 제한은 없는 게 일반적이다. 정부가 지금껏 허용한 총 면세점 특허 수는 60개다. 출국장 면세점 29개, 시내 면세점 26개, 지정 면세점 4개, 외교관 면세점 1개다. 시내 면세점 특허 수는 총 26개로 이 가운데 13개는 서울에 있다. 부산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와 중소·중견 시내면세점 1개가 있다. 인천·대구·울산·경기·강원·충북·경남에 중소·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이 1개씩 있다.



민주당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5일 5·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인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. 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이번 허가 전까지 광주와 충남·대전·경북·전남·전북·세종에는 시내 면세점이 한 개도 없었다. 제주에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2개, 중소·중견기업 면세점 1개가 있다. /김형호 기자 khk@kwangju.co.kr

## 정동영 "5·18 특별법 이달내 반드시 처리"

평화당 지도부 5·18모지 참배 5·18광장서 최고위원회의도

정동영 대표 등 민주당평화당 지도부가 15일 광주 국립 5·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옛 전남도청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. 이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5·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, 5·18 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, 망원 의원 제명 등의 5·18 3대 현안 해결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. 정 대표는 5·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사흘 앞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국립 5·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나서 "황 대표는 5·18 망원 의원 징계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무리한 뒤 광주에 와야 한다"고 강조했다. 그는 "5·18 진상규명 발목을 잡 아놓고, 학살을 정당화하는 당의 책임자로서 여기에 와 고개를 숙일 수 있겠나"라고 비난했다. 앞서 정 대표는 민주묘지에 마련된 방명록에 "오월은 평등으로 가야 합니다. 오월은 평화로 가야 합니다. 민주평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"라는 글을 남긴 뒤 지도부와 함께 현화했다. 5·18모지 참배를 마친 이들은 5·18 광장으로 이동해 옛 전남도청 복원 축구 농성을 하는 유가족을 위로한 뒤 "민주평화당이 함께 하겠다"고 약속했다. 옛 도청 앞 전막에서 열린 제18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"5·18 진상을 밝힐 직접 증거는 보안사 창고에 들어있다"며 "그 창고를 열어젖힐 권한을 지닌 사

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"고 보안사 기밀문건 공개를 촉구했다. 그는 또 "진상규명위 구성이 표류 중인 데 조기 구성과 가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"며 "5·18 왜곡 처벌 특별법을 5·18 이전에 처리하기로 4당이 합의했는데,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 5월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겠다"고 밝혔다. 유성열 원내대표는 "5·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"이라며 "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진상규명위 구성 문제를 매듭짓고 처벌법 개정을 확정해 다시는 역사 왜곡 망원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증인들이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 최경환(광주 북을) 최고위원은 "5·18 민주화운동 3대 현안이 국회에서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또 다시 5·18을 맞게 됐다"면서 "최우선적으로 5·18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"고 강조했다. 이어 "최근 5·18 당시 전두환 광주방문 사실, 시신 소각과 해양투기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"면서 "특별법 제정, 망원 의원 제명 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,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이다"고 촉구했다. 그는 또 "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5·18 3대 현안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, 망원 의원 제명, 특별법 제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광주에 오지 말아야 한다"고 말했다. /최권일 기자 cki@kwangju.co.kr 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## 세계수영대회 기간 선수촌에 면세점 한시 운영 관세청 어제 모집 공고

2019년 광주세계수영대회선수촌대회 기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. 대회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세청은 15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는 등 속도감 있게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.

15일 정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기재부는 14일 다음달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8일간 선수촌 내에 면세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내 면세점 특허 1개를 부여했다. 기재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한시적(2012년 4월27~8월27일)으로 특

허가 부여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. 대기업 시내면세점 선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주관하에 업체 선정이 이뤄진다. 관세청은 대회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6일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를 내

고 신청 자격 등 요건과 품목 등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. 이후 특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발표한다. 면세점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 아파트(옛 송정주공) 단지 내에 기념품 판매장, 미용실, 카페 등과 함께 들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. /김형호 기자 khk@kwangju.co.kr

**김은영의 '그림 생각'**

(267) BTS와 핑크

올 봄 패션계를 달궜던 색상으로 핑크 색이 주목받고 있다. 자고로 핑크색은 여성의 색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용감한 남성들의 핑크색 선호가 눈에 띄면서 색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어색해졌다. 특히 K-pop으로 세계를 들쭉이게 하고 있는 BTS(방탄소년단)가 뮤직비디

**핑크색 관복 입은 3형제 '조선시대판 BTS'**

올 '작은 것들을 위한 시'에서 7명 멤버 전원이 핑크 슈트를 맞춰 입고 등장하면서 BTS인기만큼이나 '핑크색 따라 입기'도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한다. 손철주 미술평론가는 얼마 전 '그림 속 삶 이야기'를 주제로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술관아카데미 특강에서 "BTS의 핑크 슈트는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조선시대 관료들이 입었던 관복에서 그 유전적 뿌리를 찾을 수 있다"면서 "조선시대 당상관의 근무복은 홍화꽃 색깔인 핑크색으로 이미 시대를 앞서 그 멋진 색상을 소화해냈었다"고 설명해 눈길

**'조씨 삼형제 초상'**

이 초상화는 조민, 두, 강 의 세 형제가 모두 과거에 급제한 경사를 기념해 그린 것으로 중앙에 큰 형, 좌우에 두 동생의 반신상을 배치한 삼각형 구도이다. 마지막 입술 수 있었는데 독특한 형식의 형제 초상화에서 단채로 핑크 슈트를 입었던 BTS를 연상하게 한다.

**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,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**

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

● 신세계안과 문의 1566-9988

**방수 부분설비(누수)**

부위별 방수시스템!! 분야별 방수시스템!! 최적의 방수시스템!!

"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"

광주 062)676-7719  
전남 061)375-7719  
H.010-3629-7719

**무료견적 시공상담**

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(주)씨엠테크복합방수

광주,전남 시공회사

**걱정하지 마세요!!**

"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"

유사용,모방품에 주의하세요!!

시공 및 제품 판매 / 셀프시공가능

(주)씨엠테크복합방수 "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"